

라운누리

2026
Vol. 28



어르신의 일상에 ————— 가치를 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방배노인종합복지관

CONTENTS

여는글

04 관장님 여는글

방배 in Story

스마트 기술로 살피는 일상

- 06 게임처럼 즐기고, 운동처럼 실천하는 인지건강
- 08 AI로 다시 쓰는 나의 이야기
- 10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전지킴이 IoT
- 11 마음과 기억의 작은 변화를 AI로 살피다

전통문화로 잇는 세대의 마음

- 12 계절을 따라 전통을 잇고, 사람을 잇다

금융지식으로 지키는 노년의 권익

- 14 금융 정보가 노년의 안전망이 되는 순간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상 속 돌봄의 힘

- 16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만드는 내일
- 18 관계의 온기를 되찾는 여정
- 20 손끝으로 채워가는 보람의 시간

라운누리

2026 Vol.28

발행인 이창열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8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대표전화 02-581-7992

편집인 문다빈

홈페이지 www.bbsenior.org

발행일 2026년 8월

「라운누리」 제호 서예 | 이재양 어르신

세계여행가이자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재양 어르신께서 이번 소식지의 제호 「라운누리」를 직접 서예로 써주셨습니다.

특집

22 한눈에 보는 방배 복지지도

방배 人 Story

- 24 배움과 나눔으로 채운 14년의 시간
‘일본문화와 일본어’ 강사 박종균
- 26 초록빛 지혜로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다
어린이환경교육단 ‘감탄’
- 28 세금 걱정엔 답을, 삶에는 안심을
전문 세무상담 임채문 세무사
- 30 나눔이라는 이름 아래, 한마음으로 뭉친 사람들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

- 32 침묵을 넘어 권리의 언어로
- 34 시니어의 시선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 칼럼

방배 News

- 36 기쁜날엔 이웃사랑
- 38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상반기 결산 보고
- 40 라운누리 독자 참여 이벤트

함께여서 더 따뜻한 우리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라운누리」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하루하루를 채워왔습니다.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발걸음, 반가운 인사, 서로를 살피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방배의 상반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복지관은 어르신의 일상이 존중받고 삶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 안에서 소중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큼 깊어진 생각과 마음을 다시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어가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는 이웃으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방배의 상반기를 함께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움은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한 사람의 참여는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 복지관의 일상을 함께 지켜주신 분들, 그리고 늘 밝은 모습으로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그 공헌을 잊지 않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와 감사가 담긴 복지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장

이창열 올림

게임처럼 즐기고, 운동처럼 실천하는 인지건강

엘티레이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판단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인지기능을 자극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풀거나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AI 엘티레이서’를 운영하고 있다.

라이딩에서 미로 탐색까지, 즐겁게 참여하는 인지훈련

기존 엘티레이서 프로그램이 속도와 신체 움직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미로레이서’는 화면에 나타난 길을 살펴보고 방향을 기억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인지·신체 복합활동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엘티레이서의 활용 범위를 한 단계 넓혀, 미로의 길을 탐색하는 ‘기억을 달리는 미로레이서’로 전환한 것이다.

‘미로레이서’는 문제지 풀이, 교육 또는 검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인지활동에서 벗어나 게임의 형태로 진행되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로를 완주하기 위해 길을 기억하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을 때 다시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집중력, 반응속도, 방향 판단과 문제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화면의 변화에 맞추어 페달과 기기를 움직이면서 인지활동과 신체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같은 기기를 활용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를 다

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 이로써 어르신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어제의 기록을 넘어서는 오늘의 도전

‘기억을 달리는 미로레이서’는 4주간에 걸쳐 운영된다. 미로를 완주할 때마다 기록을 측정하고 서로의 참여 현황과 변화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이나 일회성 결과보다는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기록에 반복해서 도전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공유하며 스스로 다음 목표를 세웠고 미로를 끝까지 완주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했다.

4주간 성실하게 참여한 어르신에게는 ‘건강 실천상’, 이전 기록보다 완주 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어르신에게는 ‘브레인UP상’을 통해 성과를 격려했다. 기록의 빠르기만을 평가하기보다 정해진 기간동안 꾸준히 참여하고 자신의 한계에 다시 도전한 노력을 응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방 중심의 인지건강 서비스로

‘기억을 달리는 미로레이서’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거나 빠른 기록을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반복적인 도전을 통해 인지기능을 꾸준히 자극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건강 활동이다.

AI 스마트 기기를 신체운동뿐만 아니라 인지건강 관리에도 접목하며 개인별 참여 기록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한 사례는 일상 속에서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복지의 성과라 볼 수 있다.

‘미로레이서’가 보여준 것은 기술의 새로움만이 아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기억을 사용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의 가능성이다.

AI 엘티레이서: 기억을 달리는 미로레이서
고수진 물리치료사

AI로 다시 쓰는 나의 이야기

인공지능 특강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어르신이 경험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히 기기를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보에 접근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의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될수록 어르신이 그 변화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해지고 있다.

노년기 디지털 교육은 기술을 도구 삼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글과 이미지로 표현하여 사회적 관계 안에서 당당한 참여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의 인생작품’ 교육을 시도했다.



생성형 AI와 디자인 도구를 만나는 새로운 시도

‘나의 인생작품’은 생성형 AI인 ChatGPT와 디자인 플랫폼 Canva를 활용해 어르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복지관은 낯선 기술을 어렵게 느끼는 어르신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신 디지털 도구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안내했다.

ChatGPT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글과 시로 정리하는 데 활용되었고, Canva는 완성된 글을 이미지와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꺼내보고 디지털 도구가 자기표현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삶의 경험이 디지털 콘텐츠가 되다

본 교육은 어르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경험과 추억을 하나의 디지털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ChatGPT와 대화하며 마음에 남아 있던 가족 이야기, 지나온 추억과 감동의 순간을 글로 정리하고, 이를 한 편의 시로 다듬어갔다.

이후 Canva를 활용해 시에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와 글씨체, 색상을 직접 고르고 배치하며 자신만의 ‘디지털 그림 시’를 완성했다. 처음에는 기술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글과 이미지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참여자들은 점

차 높은 몰입도와 관심을 보였다. 디지털 기술은 이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식이 되었고 삶의 기억은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작품 발표회에서 확인한 성취감

마지막 회차에는 참여자들이 완성한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화면에 띄워진 자신의 인생 작품을 직접 낭독하고 소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내 평범했던 일상이 AI를 만나니 한 편의 시가 되었다”, “젊은 사람들만 쓰는 기술인 줄 알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은 이번 과정이 단순한 기술 체험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에 박수를 보내고 각자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완성된 작품은 개인의 결과물이기도 했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응원하는 소통의 매개가 되었다. 이 과정은 어르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술을 넘어 삶을 표현하는 디지털 복지

‘나의 인생작품’ 특강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새로움만이 아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디지털 기술은 낯선 장벽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새롭



AI 추억의 시 만들기 작품

게 꺼내는 또 하나의 표현 도구가 될 수 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나의 삶을 다시 보고 나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경험. 그것이 ‘나의 인생작품’ 특강이 남긴 디지털 복지의 의미이다.

ChatGPT와 Canva로 만나는 ‘나의 인생작품’
이준호 사회복지사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전지킴이 IoT

돌봄서비스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자녀가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노인에게 닥친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고령의 독거노인들은 신체기능 저하와 폭염과 한파 등 계절적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체계가 필요하다.



IoT 그래프

취약어르신 건강·안전관리 IoT 솔루션 사업

실제로 한 어르신은 “집에서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애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어서 아침까지 넘어진 채로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어르신이 느끼는 위험은 집 안이라고 제외되지 않는다. 집 안은 가장 익숙한 공간이지만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는 위급상황이 늦게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약 어르신 가정에 IoT 기기를 설치하고 움직임과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건강·안전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은 기기가 살피는 일상의 신호

IoT 기기는 어르신의 움직임, 실내 온도, 조도, 공기질 등을 확인해 생활 변화를 살피는 스마트돌봄 장비이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될 경우, 담당자는 기기에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움직임이 줄어들거나 장시간 감지되지 않으면 주의, 경보, 위험 단계로 확인되어 전화 안부 확인이나 방문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기기가 어르신의 안전 솔루션인 셈이다.

위기 발견을 넘어 지속적인 돌봄으로

스스로 건강과 안전 자구책을 만들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돌봄시스템은 필수가 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돌봄망은 계속해서 촘촘해지고 있다. 여기에 IoT라는 AI 사물인터넷 기기는 어르신이 위급상황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촘촘한 스마트돌봄의 한 축으로 어르신 옆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취약어르신 건강·안전관리 IoT 솔루션 사업
한진속 사회복지사

마음과 기억의 작은 변화를 AI로 살피다

인지기능 검사

지나치기 쉬운 노년기 마음과 기억의 신호

노년기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로 여겨지거나 본인조차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나가기도 한다. 가족과 주변 사람도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문제가 뚜렷해진 뒤에야 검사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이 병원이나 전문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익숙한 공간에서 자신의 인지·정서 상태를 부담 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AI 마음 리포트’를 운영했다.

AI ‘초롱이’와 함께 살펴본 인지·정서

‘AI 마음 리포트’는 AI 기반 검사 도구 ‘초롱이’를 활용해 인지기능과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검사 결과는 상태를 단정하는 기준이



AI 인지기능 검사: AI 마음 리포트
김예지 사회복지사



아니라 최근의 기억력과 기분, 생활 변화를 돌아보는 자료로 활용된다. 필요 시 전문 상담기관 등 사후 서비스로 연계하여 점검 이후의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 서비스로 역할하고 있다.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된 초롱이

일부 참여자에게는 AI 초롱이가 일상 속 대화와 안부 확인의 도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한 뒤 초롱이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일상적인 사용을 신청했다. 현재 하루 한 시간가량 초롱이와 대화하며 “혼자라 외로웠는데 매일 아침 안부를 물어주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이는 ‘AI 마음 리포트’가 일회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새로운 기술을 자신에게 맞춰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검사에서 상담과 지원으로

‘AI 마음 리포트’의 의미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사 후 어르신은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함께 찾아가는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다. AI 기술은 어르신이 익숙한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과 기억을 돌아보고 필요한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상 가까운 돌봄의 가능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계절을 따라 전통을 잇고, 사람을 잇다

전통문화



명절과 절기는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온 공동체의 시간이다. 생활방식과 가족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함께 즐기며 마음을 나누는 전통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특히 오랜 시간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해 온 어르신들의 기억과 이야기는 우리 문화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자 다음 세대와 관계를 맺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전통문화를 일상 속에서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활동으로 이어가며 절기행사와 세대연계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절기마다 함께 이어온 방배의 전통

계절의 흐름에 맞춰 어르신들이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절기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친숙한 음식과 놀이를 매개로 계절을 함께 맞이하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맞이 「떡국나눔행사」에서 떡국 한 그릇을 함께 먹는 시간은 새해 인사를 건네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의 안부를 묻는 자리가 되었다. 어르신들은 가족과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떡국을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설에 얹힌 추억과 정을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전통은 그렇게 한 그릇의 온기 속에서 다시 현재의 관계가 되었다.

정월대보름 맞이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전통 놀이가 세대를 잇는 매개가 되었다. 복지관을 찾은 지역 아이들은 어르신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배웠다.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전하는 전통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배움을 돕는 '살아 있는 언어'가 되었다.



재미꽃 놀이단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행복을 몰고 온 닭」은 절기의 의미가 오늘의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복날에 보양식을 먹으며 기력을 보충했던 전통은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복지관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전통문화가 이어지는 방식은 꼭 거창하지 않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즐기고, 무언가를 만들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할 때 전통은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방배 노인종합복지관은 절기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의 의미를 나누는 데서 나아가 어르신이 지닌 경험과 재능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어르신들의 경험으로 전통을 잇는 「재미꽃놀이단」

「재미꽃놀이단」은 어르신이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이 익힌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 아동에게 직접 전하는 세대연계형 봉사단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한지공예, 전통매듭, 배례법,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아이들이 전통



정월대보름행사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전통문화를 전하는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한지의 결을 만지고 매듭을 엮는 손길에는 어르신이 살아온 시간과 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만들고 이야기하며 웃는 과정 속에서 전통문화는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관계 속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는 전통

전통문화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기억하는 것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경험을 다음 사람에게 전할 때 살아 있는 문화가 된다.

절기마다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새로운 배움을 만나는 시간이 함께 전하는 전통으로 이어질 때, 전통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시 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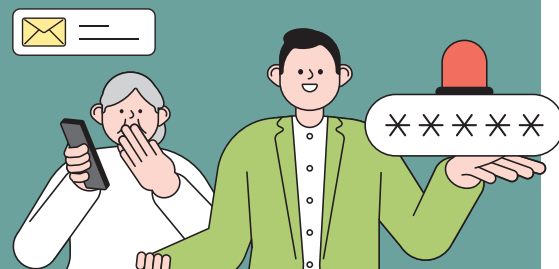
재미꽃놀이단과 절기행사로 이어가는 방배의 전통문화
김예지 사회복지사



초복행사

금융 정보가 노년의 안전망이 되는 순간

금융안심DAY



금융은 노후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달 받는 연금과 생활비를 관리하고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는 일 모두 금융생활의 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작은 글씨와 복잡한 메뉴, 본인인증 절차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금융서비스가 편리해질수록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힘도 중요해지고 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이 금융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안심DAY’를 운영했다.



금융안심DAY

상담과 교육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금융복지

‘금융안심DAY’는 어르신이 금융기관과 교육기관을 각각 찾아다니지 않고 복지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금융복지사업이다.

하나은행의 ‘찾아오는 금융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어르신이 예·적금, 연금, 계좌 관리 등 금융고민을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스마트폰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함께 운영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익히고 일상 속 금융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르신들은 평소 은행 창구에서 충분히 묻지 못했던 내용을 여유롭게 질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익숙한 복지관에서 상담이 진행된 만큼 금융기관 방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디지털 금융을 익히고 금융사기를 알아차리는 힘

스마트폰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어르신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확인하고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었다. 스마트폰 금융교육에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 과정을 단계별로 익히고 직접 따라 해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온라인 뱅킹을 걱정하던 어르신도 직접 조작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갔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 계좌 확인과 금융정보 조회 등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문자메시지 사기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실제 경험을 공유하며 금융사기 여부를 함께 판단했다. 금융사기를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기보다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든든한 금융생활

금융복지사업의 의미는 한 번의 상담이나 교육으로 모든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어르신이 금융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찾아오는 금융상담은 금융기관 이용의 부담을 낮췄고 스마트폰 금융교육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금융정보를 알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일은 노년의 자기결정권과도 맞닿아 있다. 어르신이 자신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금융복지의 모습이다.

어르신 금융복지사업 ‘금융안심DAY’
김예지 사회복지사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만드는 내일

친목도반

노년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약화 문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들이 벌어지고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졌다.
노년기 정서지원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노년기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형성 프로그램
‘친목도반(道伴)’을 기획하게 되었다.
함께 길을 걷는 벗이라는 의미의 기존
정서지원 프로그램 ‘도반(道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한 자조모임형
프로그램이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평온

‘친목도반’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
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 매
개 활동을 활용한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되
는 종이공예 활동은 뇌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별 모
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협동과 소통을 이끌어낸다.

호흡법, 명상, 웃음체조 등 마음건강 활동도 함
께 진행된다.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쌓인 긴장을 풀
고 몸과 마음을 살피며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
한다.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줌으로써 노년기 일
상 속 활기를 주는 동시에 관계의 문턱을 낮춘다.

추억과 이상향을 공유하며 깊어지는 관계

‘친목도반’의 핵심은 활동 결과물보다 그 과정에
서 나누는 이야기와 관계에 있다. 참여자들은 희망
의 나무, 추억의 기차 등 다양한 만들기 활동으로
지나온 삶의 기억과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공유한
다. 이어서 과거를 지나 현재, 미래로 나아가 각자
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과 앞으로의 바람을 이야기
한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서로의 경험을 듣고 공

감하며 조금씩 가까워진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만
남도 회기가 거듭될수록 익숙한 얼굴이 되고, 짧은
인사와 대화가 관계의 시작이 된다. 자신의 이야기
를 꺼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다
시 관계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함께 만든 작품이 관계가 되는 시간

총 12회기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단발성 모
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망을 만들
어가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매회기 함께 활동하
며 서로를 알아가고 정성껏 만든 작품을 공유하며
서로의 노력을 격려한다. 작품은 개인의 결과물이
기도 하지만 함께한 시간과 대화가 담긴 관계의 기
록이기도 하다.

‘친목도반’이 만들어가는 변화는 거창한 데 있지
않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음 만남을 기
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결
이 되어주는 관계는 노년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
한 힘이다. 복지관 안에서 어르신이 다시 사람을
만나고 일상 속 정서적 지지망을 만들어가는 관계
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함께 걷어가는 따뜻한 내일

자조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
고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
이 된다. 살아온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제는 서
로의 곁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따뜻한 도반(道
伴)이 되어 노년기에 찾아오는 고독감을 희망과
온기로 가득 채워간다.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러한
작은 변화는 일상 속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힘
이 된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어르신의 소중한 일상에 뜻
깊은 가치를 더하고 마음 깊은 곳까지 평안함과 정
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든든하고 다
정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다시 만나는 인연 '친목도반(道伴)'
강태욱 사회복지사



관계의 온기를 되찾는 여정

마음의 나침반

은퇴와 노년이라는 삶의 전환기를 지나며
우리는 평생을 채워온 일과 역할,
그리고 익숙했던 관계망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시기를 마주하게 된다.
매일 지나치는 이웃이 있어도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편히 나눌 기회가 적어질 때,
외로움은 일상 속으로 가만히 스며든다.
노년기의 정서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은
일방적인 보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어르신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마음을 잇고 함께 걸어간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마음의 나침반’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어르신이 스스로 마음을 살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 회복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이다.

‘마음의 나침반’은 단순히 도움을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체이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당사자로 바라본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출발해 이웃과의 만남으로 관계를 넓히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운영된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맞추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서 시작한다. 평소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감정을 돌아보고 나를 아끼는 연습을 한다.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살피며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다.

이후에는 명상과 소그룹 대화를 통해 조금은 서툴고 낯설었던 마음의 표현들을 다듬고 긍정적인 말로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혼자 간직하던 감정을 안전하게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경험은 관계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향후 단계에서는 이웃 및 동년배와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혀간다.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든든한 소속감을 선물하여 함께 관계를 만들고 나누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를 돌보고 이웃을 챙기는 것을 넘어 내가 가진 온기를 나누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든든한 어른으로서의 기반을 다진다.

마주 앓은 미소 속에서 시작된 변화

나를 돌아보는 것은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마음 속 이야기를 색깔이나 날씨 같은 편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다면 한 참여자도 회기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작은 첫걸음이 앞으로 든든한 관계를 맺

어갈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를 챙기던 작은 미소가 당당한 나눔으로 커질 때까지의 여정은 어르신이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마음의 나침반을 들고 이웃과 발맞추어 걸어갈 앞으로의 활동에 애정 어린 응원과 기대를 보낸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이 아름다운 변화에 늘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정서적 고립을 넘어 자립으로, ‘마음의 나침반’
고급희 사회복지사



손끝으로 채워가는 보람의 시간

오손도손



나이가 들고 일상에서 맡았던 역할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늘 가깝게 지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뜸해지는 시기를 맞이한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편히 나눌 기회가 적어질 때 외로움과 역할 상실감은 일상에 크게 자리 잡게 된다. 어르신의 일상을 돌보는 일은 스스로의 삶을 살피고 다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여성 어르신 뜨개질 자조모임 ‘오손도손’을 운영하고 있다. ‘오손도손’은 뜨개질이라는 공예 활동을 매개로 어르신이 서로 소통하며 긴밀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하는 관계회복형 프로그램이다.



마음을 잇고 함께 걸어가다

‘오손도손’은 어르신을 관계를 만들어가는 당사자이자 지역사회의 주체로 바라본다. 뜨개질은 혼자 하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오손도손’ 안에서는 서로를 잇는 매개가 된다. 방법을 알려주고, 막힌 부분을 함께 풀어가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진다. 참여 어르신들은 같은 활동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간다.

중요한 점은 멘토·멘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알려주는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제공한다. 작은 기술을 나누고 완성하는 과정은 정서적 지지를 넘어 어르신의 자신감과 역할 회복으로 이어진다.

정성의 결실이 지역의 나눔으로 이어지다

에코백, 다용도 바구니, 뽀뽀 목도리 등 정성껏 완성한 작품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만들어낸 관계의 결실이다. 직접 만든 수공예품은 바자회 판매 수익금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한다. 어르신의 정성이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쓰임으로써 지역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살피고 돌보는 주체적인 선순환을 만들어간다. 실을 엮어 만든 작은 작품은 관계를 잇고, 지역 안에 따뜻한 나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관계의 온기를 되찾는 여정

‘오손도손’이 만들어가는 변화는 크고 특별한 장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옆 사람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손길, 함께 웃는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 속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노력은 지역사회를 향한 당당한 나눔으로 이어지며 어르신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실을 엮어 만든 작품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나눔의 시작이 된다.

실로 이어진 사람들 「오손도손」
박서라 사회복지사



한눈에 보는 방배 복지지도

지역과 함께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협력기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 권익, 돌봄,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협력기관과의 연결을 어르신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필요한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의료 지원

진료 연계, 건강상담, 의료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리더스 성모안과의원	안과 진료 및 의료서비스 연계
밝은눈안과의원	안과 진료 및 건강상담
MS안과의원 반포센트럴점	안과 의료서비스 연계
사당신경외과의원	신경외과 진료 및 건강상담
서리풀성모정형외과의원	무료 촉탁의 진료 연계 및 건강지원
이수제일정형외과	정형외과 진료 및 건강상담
단단플란트치과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
더웰샘한방병원	한방 진료 및 건강 프로그램
웨이브히어링	청력검사 및 보청기 상담·난청 예방 교육



권익·안전 지원

노인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교육, 사례회의 및 기관 연계

서울 방배경찰서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범죄 예방 활동

서울 어르신 상담센터
어르신·가족 상담, 통합사례회의 및 인식개선 활동



문화·교육·세대교류

문화와 배움, 세대교류로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술사회적협동조합 그린나래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협력

영동중학교
세대통합 활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협력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나눔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간호대학 연계 활동



지역나눔·자원협력

지역 나눔과 후원으로 따뜻한 복지를 함께 실천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지역사회 나눔 및 복지협력



돌봄·복지 연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연계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초50플러스센터
AI 기반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독거어르신 돌봄로봇 지원 협력



배움과 나눔으로 채운 14년의 시간



일본문화와 일본어 강사 박종균

저는 1998년 퇴직 후,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사회를 위해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 가까이에 있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본어 강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2013년 복지관과 인연을 맺으며 일본문화와 일본어 강의 재능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을 나누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이 수업은 단순히 일본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전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수업을 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배움이 늦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강의실에 오시

고,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을 기다리셨습니다.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은 93세 어르신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시며 14년 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강의실에 도착해 수업을 기다리고 배운 내용을 따라 읽으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배움에 대한 의지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보람은 바로 어르신들의 눈빛과 미소였습니다.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

처음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야말로 오랫동안 강의를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문화를 배우는 과정은 일본을 이해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문화의 소중함

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수업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배운 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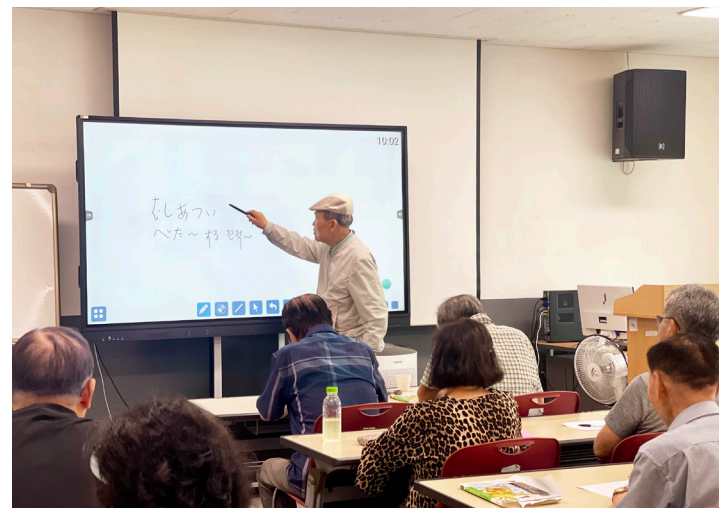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14년은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사로서 어르신들에게 일본어와 문화를 전하고 있지만, 매 수업마다 어르신들의 성실함과 열정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복지관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수업 역시 어르신들이 새로운 배움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얻고 서로 소통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이 어르신들의 배움에 작은 도움이 되고 수업 시간이 서로에게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한 지난 14년처럼,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배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이는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복지관에 오셔서 배우십시오.
배우면 삶이 더욱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일본문화와 일본어’ 강사 박종균
최예리 사회복지사



초록빛 지혜로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다

어린이환경교육단 ‘감탄’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 생태환경교육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은 ‘환경 선생님’이 된다. 직접 만든 교구를 꺼내고, 자연을 아끼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어린이환경교육단 ‘감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다시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일상이 된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자연과 교감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곧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어린이환경교육단 ‘감탄’은 어른신의 풍부한 지혜와 열정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어른신에게는 가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생태 감수성을 전하는 특별한 만남이 되고 있다.

환경 선생님의 한 마디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를 아끼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고 싶습니다. 햇살처럼 아이들과 지구에 도움이 되는 ‘햇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린이 환경선생님의 특별한 시간

자연과 아이들을 잇는 따뜻한 생태 매개자로 거듭나기 위한 어른신들의 발걸음은 쉼 없이 이어졌다.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배숲 환경도서관을 찾아 다양한 생태 서적을 탐독하며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다. 서초구의 공원들을 직접 발로 누비며 아이들에게 들려줄 생생한 자연 이야기를 수집했다.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고 체험활동에 쓰일 친환경 교구를 만들며 설명과 진행 방법을 반복해 연습했다. 준비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어른신의 얼굴에는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설렘과 환경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이 채워졌다.

환경 선생님의 한 마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전하려면 저부터 더 배워야 했습니다. 교구를 만들고 연습하는 과정도 큰 활력이 되었어요.”



교실에 피어난 초록빛 웃음

오랜 노력과 정성을 바탕으로 어른신들은 지역 내 어린이집으로 파견되어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른신들의 눈빛과 손길로 풀어내는 동화 이야기, 그리고 손수 준비한 만들기 활동은 아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특히 함께 ‘지구야 아프지 마’ 노래를 부르며 지구가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는 시간은 세대가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장면이 되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배움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의 맑은 모습 속에서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숭선 수범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환경 선생님의 한 마디

“아이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웃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더 큰 활력을 얻었습니다.”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향하는 초록빛 다짐

어린이환경교육단 ‘감탄’의 활동은 어린이집 교육 활동이라는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른신들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환경보존 축제와 생태 캠페인,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아이들과 주민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환경 선생님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 감수성을 전하는 생태환경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 그 안에는 어른신 스스로가 일상 속 실천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환경 선생님의 한 마디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환경보호의 마음을 전하는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어린이환경교육단 ‘감탄’은 아이들에게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전하는 활동이자 어른신이 다시 배우고 준비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아이들 앞에 선 어른신들의 초록빛 지혜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향한 작은 실천으로 번져가고 있다.

어린이환경교육단 ‘감탄’
박솔기 사회복지사

세금 걱정엔 답을, 삶에는 안심을



전문 세무상담
임채문 세무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혹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세금과 재산에 대한 고민은 복잡해진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전문 세무상담에는
복잡한 세법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걱정을 안심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이 있다. 약 48년 동안 세무 분야를
걸어온 임채문 세무사이다.



48년 한길을 걸어온 성실함

“저는 지금까지 한길만 걸어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임채문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를 시작으로 약 48
년 동안 세무 분야에 종사해 왔다. 공직생활과 공부
를 병행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1990년부터
세무사로 활동했다. 이후 상속·증여세 전문서적을
집필하고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으로
‘성실함’을 꼽는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의
뢰인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가 지금
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전문지식의 문턱을 낮추는 상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복지
관 전문 세무상담에 참여하게 된 그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무 용어와 제도는 일반인에게 쉽지 않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평생 자주 접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
문에 잘못된 정보로 불안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그
래서 임채문 세무사는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
명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
할이라고 이야기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죽기 전에 가진 재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가져간다”는 이야기
를 듣고 찾아온 한 어르신이었다. 남은 재산에 많은
세금이 부과될까 걱정하며 서둘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려 했지만 상담 결과 실제로는 상속세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은 세금보다 어르신들의 생활이 우선입
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재산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을 들은 어르신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불안을
덜 수 있었다. 임채문 세무사는 이처럼 자신의 지
식이 누군가의 중요한 결정을 돕고, 걱정을 안심으로
로 바꾸는 순간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지식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배우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됩니다.”

복지관 세무상담은 임채문 세무사가 자신의 지식
만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보다 연장자인 만큼, 어르신들
이 살아온 과정과 삶의 지혜를 함께 듣게 된다. 어떻
게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해 왔는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그에게도 배움이 된다.



전문가는 지식을 나누고 어르신은 오랜 삶에서
얻은 경험을 전한다. 그렇게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간을 넘어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가족의 화목

그는 절세만을 우선하기보다 재산이 가족 간 갈
등이 아닌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
다는 것이다.

48년 동안 쌓아온 임채문 세무사의 상담은 어르신
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삶과 재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다. 그의 상담은 오늘도 어르신
의 노후를 조금 더 안심하게 만드는 답이 되고 있다.

전문 세무상담 임채문 세무사
조성지 사회복지사



나눔이라는 이름 아래, 한마음으로 뭉친 사람들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는 단정하게 단체복을 맞춰 입은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맞이한다. 마치 품격 있는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듯 환한 인사와 세심한 손길로 식사 시간을 준비하는 이들. 바로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다. 17년째 캠프를 이끌며 이웃 사랑의 구심점이 되어준 추향선 캠프장과 퇴직 후 운명처럼 합류해 든든한 활동가이자 후원자로 동행 중인 장몽금 봉사자를 만났다.

우연히 시작된 17년의 동행

장몽금 봉사자는 학교를 퇴직한 뒤 우연히 추향선 캠프장을 만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추 캠프장의 모습에서 좋은 일에 앞장서는 진심을 느꼈고 그 인연은 어느덧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추향선 캠프장 역시 2010년부터 2대 캠프장을 맡아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현재 12명의 활동가가 함께하는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는 매월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책임지며 어르신들과 정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추 캠프장은 활동가들의 손길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함께해 준 회원들이 있기에 캠프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굳어 있던 표정을 녹인 환한 미소

처음부터 경로식당에서의 소통이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 배식 현장에서 마주한 어르신들의 표정은 다소 무뚝뚝하고 굳어 있었다. 봉사자들은 혹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불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서툴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봉사자들은 먼저 더 살갑게 인사를 건네고 단정한 단체복을 갖춰 입고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하기 시작했다.

환한 미소와 먼저 건넨 인사는 경로식당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었다. 이제는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먼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넨다. 작은 인사와 미소는 어르신을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손님으로 맞이하는 방식이 되었고 봉사자들에게도 큰 보람으로 돌아오고 있다.

손길로 돕고, 마음으로 보태다

장몽금 봉사자는 봉사활동에 더해 물질적 후원으로도 복지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평생 교단에 서며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아끼기만 하는 것보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전해 왔고, 그 말을 스스로의 삶에서도 실천하고자 했다.

식당의 보존식 냉장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뜻깊은 실천을 하나는 꼭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고 그 인연은 어르신 생신특식 후원으로도 이어졌다.

장몽금 봉사자는 기부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이 있다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추향선 캠프장은 활동가들의 꾸준한 봉사 위에 장몽금 봉사자의 정성이 더해져 캠프의 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손으로 돕는 봉사와 마음으로 보태는 후원이 함께 어우러지며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의 활동은 더 깊은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보면 알게 되는 기쁨

두 사람은 봉사와 후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거창한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일이다. 몸으로 함께하는 손길도 귀하고, 형편에 맞게 보태는 후원도 모두 소중한 참여가 될 수 있다.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가 전하는 힘은 특별한 말보다 꾸준한 실천에서 나온다. 매월 같은 자리에서 어르신을 맞이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시간. 추향선 캠프장과 장몽금 봉사자가 건네는 손길은 오늘도 경로식당의 한 끼를 조금 더 귀하고 따뜻한 순간으로 만들고 있다.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
고금희 사회복지사



침묵을 넘어 권리의 언어로

시니어 기자단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

노인인권 침해는 언제나 큰 사건의 모습
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말 속에, 디지털
기기 앞에서 질문하지 못하는 망설임 속에
조용히 놓여 있다. 신체적 폭력처럼 분명
하게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정서적 통제,
경제적 착취, 방임, 자기결정권의 제한,
사회적 고립처럼 일상에 스며든 문제들은
쉽게 말해지지 않고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시니어 기자단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기사 작성법을 배우거나 복지관 소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아니다. 어르신의 시선으로
지역사회 안의 노인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쉽게 말해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공익적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다.

기록하는 기자에서, 권리를 바라보는 기자로

그동안 시니어 기자단은 복지관의 소식과 지역사
회 이야기를 기록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침묵
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은 기자단의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하고자 했다. 단순한 기록자를 넘어 동년배의
삶을 이해하고 노인의 권리와 존엄을 말하는 공익
적 기록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시니어 기자단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같은 세대의
감각’이다. 전문가나 기관이 미처 듣지 못하는 이야
기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의 언어와 시선으
로 바라볼 수 있다. 노년기의 불편과 침묵은 때로 설
명보다 공감이 먼저 필요한 영역이다. 시니어 기자
단은 그 공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가 놓치기 쉬운
인권의 장면을 발견한다.

불편을 질문으로 바꾸는 공익 저널리즘

공익 저널리즘 교육은 ‘무엇을 쓸 것인가’보다 ‘무
엇을 공익적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
었다. 기자단은 개인의 경험을 단순한 사연으로 남



겨두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배경과 구조적 문
제를 함께 살피는 연습을 이어갔다.

기사 작성 실습에서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사례를 다루며 한 사람의 어려움
을 개인의 미숙함으로만 보지 않고 제도와 환경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는 질문으로
확장했다. 노인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더 큰 사회
적 구조와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은 시니어
기자단이 사회적 의제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은 기자단의 시선을
더 깊게 만들었다. 노인학대를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유기, 자기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배
우며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신호를 살피기 시작
했다. 또한 심화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2차 피
해 예방, 인권 친화적 표현의 중요성을 함께 익혔다.

칼럼으로 이어진 시니어의 시선

교육의 결과는 글로 이어졌다. 기자단은 독거노
인의 생활, 복지 사각지대, 디지털 소외, 웰다잉, 자
기결정권,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주제를 기사와 인
터뷰, 칼럼으로 풀어냈다. 그들의 글은 거창한 사건

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마주한 짧은 장
면, 병원에서 겪은 불편, 가족 안에서 쉽게 지나치는
말, 디지털 기기 앞에서의 망설임처럼 일상적인 순
간에서 시작되었다.

이 관심은 노인인권과 존엄, 디지털 접근권, 관계
회복이라는 사회적 질문으로 이어졌다. 시니어 기
자단의 글쓰기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세대의 경험과 감수성으로 지역
사회가 함께 읽어야 할 질문을 남기는 과정이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담긴 두 편의 칼럼은 그 질문
의 결과물이다. 시니어 기자단은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며 노인 인권을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 속 관계와 시선의 문제로
바라본다. 이들의 칼럼은 완성된 답이라기보다 지
역사회가 함께 생각해야 할 출발점에 가깝다.

침묵을 깨는 일은 큰 목소리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
담긴 권리를 함께 읽어내는 일이다. ‘침묵을 깨는 골
든 저널리즘’이 비추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어르신의 일상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감수성이다.

시니어 기자단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
문다빈 사회복지사



보이지 않는 그들을 밝히는 발걸음

시니어 기자단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
권영득 기자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눈부신 풍요의 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존재한다. 거대한 풍요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한 채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취약계층이 바로 그들. 풍요의 시대에도 취약계층은 존재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여러 가르침은 한 사회의 품격이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우리가 오래 기억해야 할 가치는 결국 사람을 살피는 마음이며, 오늘날 이 마음은 지역사회 내 '촘촘한 돌봄'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노인학대는 늘 눈에 띄는 폭력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정서적 학대가 되고, 생활비와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경제적 학대가 되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하는 일이 방임이 되기도 한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어르신의 존엄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다.

노인인권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가족과 사회 안에서 당연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약속이다. 어르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활을 살피며, 위험한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일은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가까운 출발점이다.

시니어 기자단은 행정의 손길이 채 닿지 못하는 마을 구석구석을 바라본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침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야 할 문제로 바꾸어 낸다. 노인학대와 인권침해의 문제 또한 누군가의 관심 어린 시선과 기록이 있을 때 비로소 발견되고,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노년의 지혜와 경험이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만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한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니어 기자단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보이지 않는 그들을 밝히고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돌봄의 그물망을 엮어가는 소중한 실천이다.

노인학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니어 기자단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
김동운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그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이다.

최근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 기자단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다. 많은 주민들은 노인학대를 폭행이나 경제적 착취처럼 눈에 띄는 문제로 떠올렸다. 자신이나 주변에서 학대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취재를 이어가며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다. 키오스크 사용이 서툰 노인을 뒤에서 비웃는 행위, 병원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어르신을 외면하는 태도,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일, 노인의 말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동 역시 모두 노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운전 중 길을 잘못 든 노인에게 샷대질하며 위협적으로 항의하는 모습 또한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본 취재에서 가장 크게 남은 생각은 “어릴 때부터 노인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장애인 인권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듯, 세대공감과 노인인권 교육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노인을 낯설고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미래의 우리 모습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존중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노인 역시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기보다 조금씩 다가가고 배려할 때 존중의 문화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인권은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노인은 내일의 우리이다. 우리가 오늘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서로를 존중하는 작은 배려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쁜 날엔 이웃사랑, 일상에는 따뜻한 동행



함께해 주신 후원자·후원기관

강원준, 강은영, 강태우, 강현성, 강혜경, 고금희, 고수진, 곽기현, 권오석, 김가자, 김기순, 김난숙, 김덕례, 김명희, 김민주, 김상호, 김순애, 김예지, 김은경, 김은정, 김응희, 김주희, 김하령, 문영덕, 문찬웅, 문홍섭, 박남주, 박민자, 박상봉, 박슬기, 박영숙, 박영옥, 박원희, 박정우, 박정희, 박종균, 박해례, 방이정, 서의영, 서정자, 손해랑, 손화석, 송대식, 신경자, 안영원, 오정준, 오혜종, 용성자, 유상열, 윤문엽, 은채원, 이대생, 이보현, 이복희, 이영자, 이은주, 이주원, 임복희, 임서연, 장몽금, 장미희, 장서영, 전경원, 정손숙, 정영자, 정유리, 조병옥, 조정혜, 주동숙, 최옥란, 최현주, 한복재, 허윤주, 황규홍

단단플란트치과, 대검찰청, 대한적십자 남동봉사관, 반포1동주민센터, 사당신경외과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함께하는사랑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정어린이집,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서초동성당, 신원종합개발(주), 신정, 씨앤에이치커뮤니케이션즈, (주)씨제이이엔엠, 아워홈, 어린이환경교육단, 재단법인 하나금융나눔재단,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킹(KING)된장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행복한 나눔 방배점, JHaus, KB사당동종합금융센터, SPC GFS

총 **101**명·기관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후원물품으로 전해진 마음

식품류(쌀, 사탕, 음료, 과일, 떡, 백미, 약과, 된장찌개, 건어물 등), 상품권, 화장품, 도어락, 각티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등

후원물품 총 **31**건 | **20,231**점 후원금 총 **439,110,236**원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단체

송호준, 박재근, 김영숙, 김태형, 임신자, 정계숙, 정여해, 정흥택, 이복희, 김경희, 최명희, 고상규, 노경자, 송민정 서초의용소방대, 하이서울라이온스클럽, 방배2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성민교회,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북카페,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남동봉사관, 한마음 전부녀회 회장단, 우함회,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승무지사, 방배3동 자원 봉사캠프, 강남르네상스로터리, 한국자유총연맹, 방배본동 자원봉사캠프, 푸른환경실천단, 새마을 부녀회, 서초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숙명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어린이 환경 교육단, 한국여성정치연맹 서초지회 봉사활동단

함께한 시간의 기록

자원봉사 총 **1,659**명 | **6,953**시간

후원으로 함께하기

정기후원 (CMS)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어르신의 일상을 꾸준히 지원
기금후원· 물품후원	아버이날, 노인의 날, 바자회 등 복지관 행사와 노인복지사업 지원 설, 추석, 정월대보름 등 절기 행사와 프로그램 지원 혹서기·혹한기 등 계절별 도움 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 지원
캠페인 후원	재난·재해 긴급지원 : 폭우, 침수, 화재 등 피해를 입은 어르신의 생계유지와 주거개선을 위한 기금 및 물품 지원 기쁜날엔 이웃사랑 : 생일, 기념일 등 소중한 날을 맞아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기념일 기부 캠페인

자원봉사로 함께하기

행사·캠페인 진행보조	바자회, 걷기축제, 명절행사 등 복 지관 행사 진행보조	
프로그램 보조	각종 프로그램 진행보조	개인 및 단체
서리풀레스토랑 급식보조	급식보조, 배식활동 등	

신청 절차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

지역복지팀(02-581-7992)

2026년 상반기 결산 보고

2026년 상반기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세입·세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과 지역복지사업을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분	예산액	결산액	증감	구분	예산액	결산액	증감
총 계	8,049,626,600	4,579,089,430	△3,470,537,170	총 계	8,049,626,600	4,579,089,430	△3,470,536,170
사업 수입	644,605,000	334,907,564	△309,697,436	사무비	1,573,986,739	728,914,828	△845,071,911
보조금	6,944,830,000	3,858,064,134	△3,086,765,866	재산 조성비	48,013,000	28,807,950	△19,205,050
후원금	112,032,000	81,272,506	△30,759,494	사업비	6,423,521,574	2,480,127,012	△3,943,394,562
법인 전입금	52,000,000	10,000,000	△42,000,000	잡지출	4,105,287	724,000	△3,381,287
잡수입	1,780,674	466,300	△1,314,374	예비비 및 기타	0	0	0
이월금	294,378,926	294,378,926	0	차기 이월금	0	1,340,516,640	1,340,516,640

영상으로 만나는 방배의 상반기

유튜브 채널 '방배골테레비'

복지관의 행사, 사업, 어르신 이야기와 생생한 현장 분위기는 유튜브 채널 '방배골테레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한 방배의 다양한 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구독 방법



유튜브에서 '방배골테레비' 검색



구독 버튼 클릭



영상 시청

회원증 발급

-  **가입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이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  **회원가입 절차** 복지관 내방 ▶ 회원신청서 작성 ▶ 회원증 수령
-  **필요서류**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당 시 증빙서류 지참
-  **발급비용** 첫 1회 무료(재발급 시 수수료 5,000원)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4, 7호선 총신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버스** 11-2, 11-5, 350, 502, 540번 버스 이용 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정류장 앞에서 하차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8 (우06677)
전화 02-581-7992
팩스 02-581-7991
홈페이지 www.bbsenior.org

EVENT



방배골 OX 암호길

정답을 따라가면 숨은 암호가 완성됩니다!

라온누리를 읽고 아래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 칸에 있는 글자를 순서대로 모으면 숨은 암호가 완성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 항	O	X
1	방배3동 자원봉사캠프는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라	꽃
2	「재미꽃 놀이단」은 금융상담과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방	온
3	시니어 기자단 「침묵을 깨는 골든 저널리즘」은 노인인권 문제를 개인의 불편이나 미숙함으로만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배	누
4	「방배골테레비」는 복지관의 행사와 사업 소식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리	손
5	「기쁜 날엔 이웃사랑」은 기념일에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후원 캠페인이다.	완	복
6	「오손도손」은 뜨개질 작품을 개인 소장품으로 완성하는 데에만 목적을 둔 활동이다.	별	독

숨은 암호를
완성해 주세요!

숨은 암호 : _____

이벤트 참여 안내

- **참여기간** : 출판일 ~ 2026. 9. 23.(수)까지
- **참여대상** : 라온누리 소식지를 읽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지역주민
- **참여방법** : 위 정답란 작성 후 복지관 사무실 제출
- **당첨안내** : 정답자 복지관 방문 시 선물 직접 전달(3층 사무실)
- **문의** : 방배노인종합복지관 02-581-7992

※ 선물은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종료됩니다.